

## 제8회 'AEI 월드포럼' 주제강연

## "동북아와 한미관계"

1989년 6월 미국 덴버에서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제8회 'AEI 월드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수상 등 세계적 지도자들과 각국 정부 고위관료, 기업 지도자, 저명한 석학碩學들이 참석했다. 김종필 총재는 한국 대표로 초청 받아 '동북아와 한미관계'에 관해 연설했다.

존경하는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 각하,  
존경하는 세계적 지도자,

중대한 국제문제에 관한 세계의 지도적 토론장인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orld Forum에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신민주공화당 총재로 연설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느 다른 주제에 대해서보다 한미관계의 현황과 그 미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이미 뿌리 깊이 내린 전통적인 우호보다도 최근 몇 해 사이 요란스럽게 표면화된 갈등이 더 크게 주목되는 두 나라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한국민에게는 물론 미국민들에게도 유익하고 시의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나라의 관계가 이미 1세기의 연륜을 쌓아 왔다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하겠습니다. '은둔隱遁의 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국제정치의 격랑 속에 휘말리면서 태평양 너머의 신흥강대국인 미국과 정식 수교한 1882년으로부터 어언 107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는 경우, 미국이 한국의 첫 번째 수교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두 나라가 얼마나 오랜 벗이었는가를 웅변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미 두 나라는 두터운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차대전의 종결을

전후한 시점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련도가 높아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이가 큰 두 나라를 특수한 우호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본인은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통된 신념이라는 이념적 요인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간의 창의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어떠한 힘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은 두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울타리 속에 결속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이념적 공통성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한미관계에는 심각한 갈등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궤도에서 벗어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이념적·제도적 양립성兩立性이 약화된 경우,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자라났으며, 그것은 한미관계를 긴장시키곤 했던 것입니다. 그 긴장은 두 차원에서 나타났습니다. 미 행정부가 대한對韓 비판여론을 수용해 한국 정부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할 때, 한미관계는 공식적 차원에서 이른 바 불편한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공식 관계가 큰 어려움을 겪음이 없이 우호를 유지할 때, 한국

민의 차원에서 반미감정)이 사라난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싹트고 1980년대에 들어와 확산된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의 공공연한 반미감정의 표출은 그러한 시각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본인에게 우리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인의 간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참견조차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못마땅한 것과 인정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 바로 정치와 정책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본인은 **오늘날 한미관계의 발전적 전개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있는 반미주의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한국 내에서 점증하는 반미감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한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화를 성심성의껏 추진해나가 1990년대 전반에는 서구 선진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경험한 다른 사회들이 그러했듯이 이념적 다극화多極化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는 한국의 안전과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이념적 합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에 결함이 없지 않고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시 이 이념적 노선 위에서만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켜지고 국민 각자의 창의성이 자발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을 꾀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시민층, 그리고 이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정치 지도층이 요지부동의 자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사회가 굳건히 형성되었습니다.

한미관계를 특수한 우호관계로 발전시켜온 두 번째 원동

력으로 본인은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미국·소련·중국·일본 등 4강의 이해가 동시에 얽혀있는 곳입니다.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미국이 또 하나의 해양세력인 일본과 제휴하여 공산 양대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략적 요인은 이념적 요인과 표리관계表裏關係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함으로써 또한 일본의 안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흔히 일본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체제의 초석이라고 부르는데, 한미군사동맹은 바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사활적死活的으로 중요한 일본의 안전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또 미일 안보체제와 더불어 미국의 태평양 안보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미군사동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서방세계의 자유와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안의 남북 군사대결 상황에 눈을 돌릴 때, 한미군사동맹체제의 긴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에 비해 우월한 군사력을 지닌 북한의 이른바 남한 해방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북한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관계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본인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해 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한미관계의 전략적·군사적 측면에 대한 본인의 이러한 견해가 오늘날 한국의 일부 학생층과 청년층에서는 보수주의적이며 친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외세의존적外勢依存的인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솔직히 시

인하고자 합니다,  
 2차대전이 끝난 이후의 국제관계사에 대해 반전통주의적 해석을 취하는 이른바 수정주의 학파의 이론에 영향 받은 그들은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그리고 한국을 미국의 종속국가로 파악하면서 미군의 철수와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폐기마저도 제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 밑에 때때로 순수한 민족주의적 감정이 흐르고 있으며, 또 1980년 광주(光州)의 비극 당시 미국이 취한 태도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민의 대다수는, 그리고 반정부적인 학생들 가운데서조차,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고비로 선진국가로 힘차게 발돋움 하고 있는 자신들의 조국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비하(卑下)하는 견해에 부정적이며, 한미 안보관계는 돈독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까지 이념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관계의 현황과 미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두 차원에서는 비록 부분적으로는 갈등이 있겠으나 전통적인 유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개진했습니다.

바야흐로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에는 태평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증거가 이른바 태평양제품(太平洋製品, Made in Pacific)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보급입니다. 그것은 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상징함과 더불어 태평양시대의 전개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국제관계의 시대 곧 태평양시대를 이끌어 나갈 잠재적인 국가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세계의 석학들은 한국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몇 해 안에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선다면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러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인데, 여기에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와 돈독한 유대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은 한미 두 나라 국민이 한미관계를 반드시 것처럼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본인은 두 나라 관계의 장래를 낙관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www.kimjongpil.com](http://www.kimjongpil.com)에 실려 있습니다.



운정을 한국대표로 초청한 포드 전대통령과 기념 촬영. 포드 왼쪽에 김용채 원내총무와 운정 오른쪽에 김용환 정책위의장.